서민 주거안정 관련 현장방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그를 위하여 부동산 종합세는 잘못된 구조를 고쳐나가자는 것. 서민의 보금자리가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매우 기쁩니다. 대통령되고 나서 기분 좋은 일도 있으나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 기쁜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 더 기쁩니다. 방한갑선생님, 오영숙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나, 사실 제가 좀 미안합니다. 이 임대주택은 그 이전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마무리만 했습니다. 칭찬을 제가 받기가 미안합니다. 저도 공짜배기 칭찬을 들었으니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께 칭찬받은 만큼 꼭 갚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이사를 25번을 했습니다. 이사 이유 중에는 하숙을 하다가 자취방, 가정교사, 잠시 점원노릇하기 위해서 옮기기도 했으나, 주로 먹는 것 보다 잠자고 공부할 집이 없어서 이사를 자꾸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안될 때는 교실에서 자기도 하고 집 없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고등고시 합격하고, 시골에서 자전거 뒤에 보따리 하나 싣고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셋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지는 않았으나 전세 집에 있다 보니 항상 우리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었

습니다. 한번은 집사람과 1시간 거리에 있는 해운대 AID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15평형 AID 아파트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궁궐같이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집사람과 AID 아파트 한 채 사자고 약속했습니다.

고등고시 된 걸로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수생 시절이니까 월급도 많이 못 받고 쓰기 바빴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항상 차창으로 윗 쪽을 쳐다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산중턱에 세워진 영주동, 좌천동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다녔습니다. 남의 아파트를 보면서 군침 흘리며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주거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집이 제일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경제 어렵고 일자리도 마땅찮고 일자리가 있어도 벌이가 시원찮고, 그러나 여러분은 집 걱정은 덜어서인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려워도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는데 제일 기본조건이 나와 아이들이 몸을 눕히고 쉴 수 있는 곳, 밥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집, 주택은 첫째 조건이다. 주택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인간의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주택은 시장에서 해결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하나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조금 전 건설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교 장관께서 이 정책을 착실하게 성의를 갖고 추진해줘야 합니다. 잘 해달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신문이나 TV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여기 와서 실제 주택 지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주택공사가 참 열심히 잘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공 사람들에게 상을 줄 생각입니다. 정책은 건교부가 하고 실제 집을 짓는 것은 주택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주공이 중요합니다. 주공이 같은 집을 짓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정이 붙게 지어주는 것은 주공입니다. 주공 사장이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주공 사장은 애국지사 김구선생님의 손자입니다. 얼굴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임시정부 청사에 들렀습니다. 그때 김구선생 등 애국지사들이 살던 집이 정말 작고 옹색해 눈물겨웠습니다. 꼭 가정집 같은 자그마한 방 같은데서 나라를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요즘 앞의 조그만 아파트 같은 곳에서 임시정부가 국사를 논의했던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지을 땅을 위하여 규제에 관하여 유연하게 대처

집을 짓자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남아돌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다른 곳에 쓸 것을 아껴서 서민주택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고 건교부 장관의 약속입니다. 그래도 집을 짓자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땅이 귀합니다. 땅을 마련하려면 여러 규제가 많아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서민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결단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교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의 보금자리가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손학규 지사님은 저와 당이 다릅니다. 저와는 국회에서 만나면 얼굴 붉힐 수 있고 삿대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항시 손발을 잘 맞춥니다. 며칠 전 도자기비엔날레에서도 손발을 잘 맞췄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서민들 주택마련 하는 데는 손발 잘 맞추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공처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경기도도 역할을 많이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합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실패합니다. 꼭 붙들어둬야 합니다. 엊그제 부동산 종합세제 발표했는데 찬반양론이 있지만 땅값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별히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해당되지만, 여러분은 큰 손실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정도에게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종합세는 투기를 통한 폭리를 막아 집값 인상을 억제하는 것

부동산 종합세 제안은 이 잘못된 구조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땅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정당한 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몰라도 땅 투기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5년 뒤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22평에 살고 있으면, 25평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그 정책을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임금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세, 집값이 높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을 낮춰야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민주택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제로 봐서 꼭 필요한 정

책입니다. 국가경제로 봐서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하도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국민들 마음에 기대가 크다보니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다. 어쩐지 모자라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고 해서 믿어줄까 싶어서 자꾸자꾸 길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문제만 아니라 하나하나 책임 있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말로, 대화로 하겠다고 해놓고 공권력이나 주먹을 내세우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해놓고 다시 대화를 내세우니까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람들과 집을 사고팔고 할 때도 두 가지 얘기를 다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좋은 말할 때도 있고 겁도 줍니다. 나는 절대 아이 키울 때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 2년 뒤에 약속했던 일들을 다했는가를 다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뒤에 직접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나든 안 만나든 집권 초에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 많이 못해도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